

원시림 창공 가르며 타고 신비 벗긴다

비행선 생태탐사

[글 | 김태공 기자 · a2gong@donga.com | 사진 | GAMMA]



아프리카 남동쪽 인도양 상에 외로이 떠있는 마다가스카르. 이 작은 섬나라의 열대우림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생태계의 마지막 보고 중 하나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구의 생물은 매 10년마다 5%가 멸종된다. 그동안 많은 식물학자와 동물학자는 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원시림의 생태계를 탐사해왔다.

지난 2001년 10월, 마다가스카르의 동쪽 해변 마조알라 반도에는 때이닌 사람들로 북적댔다. 식물학자, 생태학자, 곤충학자, 양서류학자 등이 포함된 전세계 과학자 75명이 마다가스카르의 열대우림 생태계를 탐사하고자 모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탐사는 여느 원시림탐사와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다. 과학자들이 비행선을 타고 열대우림 위를 날아다니며 생태탐사를 수행한 점이다. 이들은 왜 비행선을 뺐을까.

